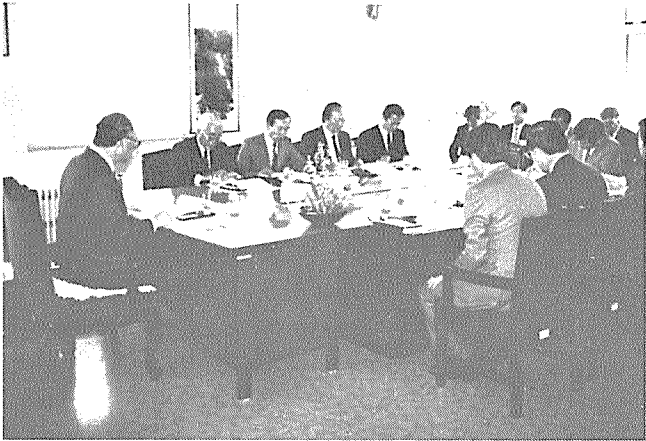


## “健協의 사업실적 높이 評價”

權彝赫보사장관 健協방문서 소신 밝혀



權彝赫보건사회부장관은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반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건강관리협회를 초도 순시하고 寄協이 발전적으로 健協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온 이래 눈부신 사업실적을 거행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 보건향상을위해 노력해 줄것을 건협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尹成泰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李晟雨보건국장, 崔善政공보관, 朴茂三 행정 관리담당관, 吳大奎보건교육과장등이 수행했다.

徐丙高 健協회장을 위시하여 林漢鍾 서울지부장, 安商玉 이사, 李寬永사무총장, 각부실장과 각시도 사무국장의 영접을 받은 權장관 일행은 먼저 徐회장의 간단한 환영인사에 이어 李寬永사무총

장으로 부터 健協사업 전반에 걸쳐 현황보고를 받았다.

權彝赫장관을 방문소감겸 인사말씀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기생충관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그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 줄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보험 조합과 건협과의 유대관계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서로 서로 협력하여 조합원들의 건강관리에 힘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權장관은 인사에서 『내가 과거에 健協의 理事로 재직하였기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내가 알기로는 健協과 같이 內實이 있는 단체가 드물고 멋지게 발전한 단체도 없다고 들었다. 과거 기생충박멸협

회도 최대의 기생충박멸효과를 건우었다고 생각되며 기협이 건협으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어 그간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한다.

지금에 와서는 건협의 존재가치를 내외에 과시하게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로지 책임자되는 분과 밑에서 보필해주는 사람들이 합심협력, 일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과거에는 옆에서 보필이 부족해서 없어질뻔 했던 일도 있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금석지감이 있다 하겠으며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이제는 바야흐로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회구현으로 실업자가 없는 것과 장애자 대책등의 문제가 주요과제로 떠올라 있다. 건협은 마땅히 복지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건협은 문자그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안심하고 정부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시범 단체이다.

그 동안의 사업수행을 높이 평가한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끝으로徐 회장을 중심으로 알차게 일을 처리해주시길 빈다.』라고 말했다.

權장관은 건협의 장기사업계획 전망에 관해서도 설명을 듣고 대단히 훌륭한 계획이며 욕심같아서는 가족계획사업도 덧붙여 해보았으면하는 바램이라고 말하고 사족도 없고 내실이 있고 발전이 있는 이상 더 바램이 없다고 칭찬했다.

이어서 權장관과 수행원 일동은 서울 지부 검사소를 방문, 최신 검사기자재와 검사광경을 일일히 돌아보고 감사원 및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서부터

— 직장 새마을 순회교육, 라장운교수



健協 본부 및 서울시지부는 지난 4월 1일 홍보관에서 직장 새마을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과 직장」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 송전대 라장운교수는, 『행복의 조건은 우선 가족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이다.』라면서 서로를 믿는 풍조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그 사회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16회 보건의 날 기념식

## 成正雄 사업부장에 대통령 표창

김병기 제주지부 사무국장에 보사부장관 표창장, 이순 충북지부 국장에 도지사 감사장, 윤영식 과장, 김병섭과장, 설성수과장 등도 보사부장관 표창, 김숙일 임상병리 계장에 도지사장



사진 윗줄 좌로부터 성정웅 사업부장 김병기 제주지부사무국장, 이순 충북 지부 사무국장, 윤영식 검사과장 사진 아랫줄 좌로부터 김병섭 부산지부서무과장, 설성수 전북지부사업과장, 김숙일 임상병리계장

지난 4월 7일에 실시된 제16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成正雄 본회 사업부장을 비롯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된 본회 직원들이 대통령, 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로부터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시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상 : 성정웅(본부 사업부장)
- ◎보건사회부장관상 : 김병기(제주지부 사무국장), 윤영식(본부 검사과장),

김병섭(부산지부 서무과장), 설성수(전북지부 사업과장)

◎도지사상 : 김숙일(경기지부 임상병리계장)

◎도지사 감사장 : 이순(충북지부 사무국장)

健協서울지부 직원 체련대회  
- 남이섬에서

健協 서울지부는 지난 4월 30일 남이섬에서 직원 체련대회를 실시했다.

## 예방 보건 활동 강화 다짐

- 제16회 보건의 날 기념식



제16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권이혁 보건사회부장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WHO는 “모든 이에게 건강을

모든 사람은 건강을 위하여”라는 표방과제를 내세우고 모든 국가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4월 보건의 달을 기해 전국적으로 국민보건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예방을 위한 보건 활동을 더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들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 직원간 친목도모와 체력단련

- 健協 본부 광릉서 체련대회



건협본부는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광릉에서 직원체련대회를 실시했다.

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체력단련을 위해 실시된 이번 체련대회에서는 조별 대항 장기자랑 및 운동경기 등이 실

시 되었다.

한편, 체련대회를 마친 후 직원들은 자연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광릉주위의 휴지를 줍기도 했다.

## “심장질환”에 대한 강의

- 서울시지부 5월 24일 2시부터 공개강좌개최

健協 서울특별시지부는 5월 건강관리 공개강좌를 오는 5월 24일 화요일 14:00부터 홍보관에서 갖는다.

이날 주제는 “심장질환”으로 강사는 홍창의 서울의대 소아과 교수다.